

불교용품 주고 받기 꼬마불자들에게 확산

5월 어린이 날을 앞두고 어린이 불교용품을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는 새 풍속도가 꼬마불자들 사이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전부터 신재마을, 견지불교, 진영사에서 어린이 불교용품이 활발히 제작되면서, 비

꼬끼리연필, 연꽃동자, 연꽃오색주머니, 수철봉, 공양계승이 작한 도시락통, 동자저금통등으로 크기가 작고 색깔이 다양하면서 아기자기한 모양의 불교용품이 대부분을 이룬다.

또 총 30종에 달하는 카드와 여자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되고 있다. 또 이런 새 풍속도가 꼬마불자들 사이에 폭넓게 정착돼, 단순히 선물주고 받는데에서 벗어나 불심과 범우들 간에 우의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의견이다. 조계사어린이회 허성희간

동자저금통등 60여종... 어린이 불서·카드도 호응

교적 규모가 큰 법안정사 불공사석왕사 조계사등의 어린이회 및 유치원에서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펼친 '어린이 불교용품 주고받기'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어린이 불교용품은 총 60여종이 넘는다.

하는 10여종의 약세리도 있다.

뿐만 아니라 5~6종 1백여권에 이르는 어린이 불교서적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린이 날이 초파일과 근접하게 있어 불교용품을 주고받는 어린이들에게는 봉축의 의미도 함께 새기는 기회가

사는 "어린이 불교용품 주고 받기는 아이들에게 불자라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며 "이런 풍속이 어린이 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일선지도교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필성 기자〉

"꿈나무 포교 새 장 열어"

은석국교 PC통신 이용 불교 공부

종립학교는 물론 일선 학교단위로는 최초로 PC통신을 이용, 범포교자료를 교환하고 모임을 소개하는 학교가 생겼다.

서울 은석국민학교(교장 김병호)가 바로 그곳. 은석국민학교는 재학생 1천1백70명 전원이 PC통신망(천리안)에 가입, <은석동우회>란이 개설

됐다.

은석동우회는 ▲연화어린이회 ▲연화어머니회 ▲불교신문등의 불교정보 교환관과 공지사항, 학생들의 대화방 등 30여개로 구성돼 있다.

학교측은 PC통신을 이용, 재택(在宅)교육을 통한 학생·학부모와의 대화뿐 아니라 불교모임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교환을 통한 신속하고 폭넓은 포교사업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4~6학년생에게는 컴퓨터 시간을 통해 사용법을 가르치고 1~3학년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특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은석국교 PC통신 운영담당 한왕현교사는 "PC통신 교육으로 학생들을 방과후에도 지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보다 자유스럽고 다양한 불교소식을 접할 수 있어 꿈나무들에게 포교사업의 새 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 전후 청소년 불교 문화행사

날 짜	행 사 명	장 소 및 시간	주 관 단 체
4/21~5/7	· 아동극 공연 (1일3회)	목동 청소년회관	목동청소년회관
4/28	· 한불합창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오후7시	부산불교 합창단협의회
4/30	· 연꽃 노래잔치 · 불교공연대회	동국대 중앙당 오후1시 조계사 대웅전 오후2시	대불교 대한불교총연인 협회총본부
5/5	· 불화산 청소년축제 ·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 어린이 콘서트	불화산 청소년수련원 오전10시 경기도 여주 목야불교박물관 오전10시 조계사 불화사관 오전10시 봉곡사 오전10시	불화산 청소년 축제위원회 월간 '불화산' 목야불교박물관 조계사 어린이회
5/7	· 뮤지컬 '백설공주'	구룡사리관 오후2시	구룡사
5/13	· 청소년음악회	피리관인 오후7시	목동청소년회관
5/13~5/14	· 아동극 '난관왕자' 아버지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오후3:55, 오전11시, 오후2시	월간 '동송나라'
5/14	·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 어린이 백일장	동국대 중앙당 오후2시 목동 청소년회관 오전10시	청교단
5/21	· 연꽃백일장 및 사생대회	부산 범어사 탐진 오전10시~4시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협의회
5/26~5/28	· 서울인형제 (국제인형제)	목동 청소년회관 오후2:4시	목동청소년회관

5월 청소년 문화행사 다채

올해 5월5일 어린이날은 부처님 오신날이 이틀뒤로 겹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어느때보다 풍성하다. 올해 어린이날 전후로 펼쳐지는 청소년문화행사는 사찰 단위의 백일장 및 사생대회, 연꽃, 노래경연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문화행사는 불교계 문화포교의 장이 되는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꿈나무들이 한데 어울리는 어울마당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간 '불화산'과 목야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국 어린이 불자들의 부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법구경

이리석음의 장
업은
계에 덮인
불씨처럼

어머니! 청, 홍 사리에 고도리까지 모두 19절이나 있어

모든 용만이네는 피바가지까지 쓰셨네 호호호

아이고 오늘도 다 털렸구나

집에 있는 돈이 이게 전부인데...

얼마라도 좋아요 드림께

용만이 얼마 전이네도 들었어

머칠진 나한테도 와서 금하다고 돈을 꾸 갔는데

어머! 그래요?

아이고 용만이 어머니 고마워요

유-겨우 또 한 구멍 막았다

이차 많이 주는곳 소개 해 준다기에 용만이네가 보증서고 2백만원 돌려줬더니 이차는 잘 정겨 주시네요. 호호호

이젠 돈 빌려서 빌린 돈 이차 같으려 다니는 꼴이 되었으니...

못된 짓을 한다해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일이 그 자리에서 끈 끈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계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못먹어도 고다고!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어머! 용만이 내 뱀씨 나와?

오늘까지 천만원도 더 날렸어

어머! 그렇게나

요즘 좀 볼는 것 같던데...

밀천이 너무 짹아서 그렇잖아

차용증 하나 써 내가 돌려줄게

거긴 이차가 너무 비싸서 업무가...

돈놓고 돈 먹었는데 그깟 이차가 대수어?

크게 한판 없으면 끝나잖아

분 돈 놀이 하는 거 보자

알만한 사모님들이 치는 큰판인데 거기서 잘하면 본전은 달박 찾을수 있을거야

어때? 내가 소개 해줄까?

크게 한판...!

오늘 역대 주부도박 단을 걸거던 경찰은

어머니! 저이가...

저건 용만이 엄마 아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도리어 그의 머리를 부수고 그의 행운을 손상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사찰여행 안내

단체명	여행지	전화
두레	문경 봉암사와 문경세계 등	(02)712-5812
불교신행연구원	팔공산 갖바위, 거조암 등	(02)587-6613
용신항공여행사	서산 간월암, 낙산 흥련암 등	(02)279-1191
터사랑	강진 백련사, 정흥 보림사	(02)725-1284
한국일보명찰순례	합천 해인사, 관측사	(02)724-2615~6
부산불교교육원	쌍계사	(051)456-4080
부산불교신학회	쌍계사	(051)464-2020
광주불교교육원	호남지역 사찰	(062)228-9098
신라문화원	경주박물관, 안압지, 첨성대 등	(0561)771-1950

5월은 가정의 달

"가족끼리 사찰순례 떠나요"

불교단체들 불심가꾸기 여행프로 마련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의 회원인 송수진보살(서울 흥과국교 교사)은 지난해부터 대학생인 딸 재은양 아들 재훈군과 사찰순례여행을 함께하며 독특한 불심과 가족애를 가꿔오고 있다.

"여러번 찾았던 절인데도 아들 딸과 함께 가보면 새로운 인상과 느낌을 갖게 돼요"라고 송보살은 말한다.

"오가는 버스 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새벽예불도 하면서 불자로서 마음의 교감을 나눕니다"라는 송보살은 그래서 항상 다른 가족들에게도 여행을 권한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운 것이 요즘 가정의 현실이다.

유서깊은 산사와 문화유적지를 찾아가는 가족여행을 통해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심으로 하나되는 불자 가정을 가꾸는 것도 바람직한 불교신앙의 한 방법이라고 불교단체들은 말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불교신행단체와 여행사에서 불심가꾸는 사찰·문화여행을 준비하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터사랑은 오는 5월 13~14일 전남 강진 백련사와 장흥

보림사로 1박2일간의 순례일정에 오를 예정이며, 부산불교교육원도 경남 하동 쌍계사로 우리문화여행을 떠난다.

용신항공여행사도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가는 서산 간월암 관음 도량참배를 떠날 예정이고, 두레는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행으로 문정 범암사와 문정세계를 오는 5월 6~7일 방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교신행연구원, 신라문화원 등에서 사찰순례·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5월 사찰문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불교 5월호

(제)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 값 3,500원

부처님 오신 달 5월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행 19호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누가 승려사 상부를 출가 했나!
현장취재 승려사 상부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대박 불자들은 어떻게 성보 기증했나?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충남 대학교 교수 불자회
생황불교·미주지역과 초월 용다
교리산맥·이승엽과 이승환
법명 이야기·강진 무위사 극락보살 김현준
예배에 보살불교·장흥보살·일선의 해탈 불행자 왕지
수행자의 이면·도반·구수한 전국의 사람 토인 스님 포함

포교당 일기·벼랑 위의 사람들 한우
계사지를 찾아서·종교/정통
김상영, 최태선·불교와 민속·통일신라이래의 전통
안동회 김중대
4회연속특별기획3
지방자치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 김병준
좌파소리·칼린 사명을 보는 종교 / 정종철
귀남아 듣고·부처와 석가도 / 배기성
시사·가이산 골프장 건설을 김교한다 / 유정길
스님께 듣습니다·암울한 불사 이루는 작구 큰스님 김희관
신행수기·나는 몸 된 곳 그곳으로 간다 / 함성일
특별기고/중국광저우의 신라 스님이었다 유봉규
권말부록·불교평론과교과교육 이해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514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현미저분도쌀

- 현미의 문제점: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려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오) + 미강가루(음용) = 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더 쉽다.)
5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조금 더 쉽다.)
6분도 쌀(주식오) + 미강가루(부식오) = 현미(먹기 아주 더 쉽다.)

- 번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면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쌀을 비르게 먹음)이든 米壽(이든어덜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진치)이다.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큰스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오랫동안 진리의 결정체!

· 4×6판 · 184면 · 2,000원
· 도서출판 정경각 발행

법공양으로 특히 좋습니다

첫째 / 소지가 간편하여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 부담없는 가격으로 선물하기에 좋습니다.
셋째 / 읽고나면 누군가에게 꼭 권하고 싶어집니다.

문의 / 해인사 백련암 (0569) 32-7300, 서울사무실 (02) 277-2676
대원사(총판) (02) 323-5511-3
※ 다량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할인하여 드립니다